

# 통신 · 멀티미디어 어우러진 컴퓨팅 축제

## '95 춘계 컴덱스 & '95 윈도우 월드

컴덱스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 등이 어우러진 세계 최대의 컴퓨터 축제이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95 춘계 컴덱스는 110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0만명의 관람객이 입장했다. 그러나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획기적인 신제품은 다소 적었다는 평을 받았다. <편집자주>

이 상 훈 월간 정보통신시대 기자

**미** 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GWCC)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세계 최대 컴퓨터 쇼인 '95 춘계 컴덱스와 '95 윈도우 월드가 열렸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컴덱스 전시권을 인수한 후 처음 개최한 이번 춘계 컴덱스는 참여 업체 수나 관람객 수에서 예년과 비슷한 성과를 거뒀지만, 출품된 제품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획기적인 신제품보다는 대부분 기존 제품을 다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관람객의 지배적인 견해다.

주최측인 소프트뱅크 컴덱스에 따르면 이번 컴덱스 & 윈도우 월드에는 20여개 국가에서 1,100여개 업체가 참가해 5,000여개가 넘는 부스에서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한껏 자랑했다고 밝혔다. 관람객은 10만명, 이중 외국인은 6,000명 정도였다.

### 통신 · 멀티미디어 강세

컴덱스는 컴퓨터 산업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봄 · 가을로 나뉘어 1년에 두번 열리며, 봄에는 애틀랜타에서, 가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는 컴덱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업체 수나 관람객이 급증해, 단순한 '전시회'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춘계 컴덱스에는 노벨, 델, 애플컴퓨터, 디지털, IBM, MCI, 후렛팩커드, AT & T,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후지쯔,

▼ '95 춘계 컴덱스와 윈도우 월드는 20여개 국가에서 110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관람객은 10만명이 입장했다.



모토로라, NCE, 도시바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관(모니터), LG전자(CD-ROM 드라이브), 현대전자(MP-EG 칩)가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참가를 했을 뿐, 국내에서 직접 참가한 업체는 1개 회사에 불과했다. 새로운 개념의 모니터를 개발해 전시회에 참가한 NTK는 전시회 기간동안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국내 업체의 참가가 적은 것은 가을 컴덱스에 비해 규모면에서 적기 때문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컴덱스의 전시권을 인수한 탓인지 일본의 업체 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는 모습이었다.

이번 컴덱스는 네트워크 컴퓨팅의 커뮤니티케이션관,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출판물을 포함한 멀티미디어관, OEM관, I-SV·플러그 & 플레이·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프로바이더·오피스 솔루션·네트워크 컴퓨팅의 엔터넷(EnterNet) 멀티 벤더의 시연장 등이 어우러진 윈도우 월드관 등 크게 4개 전시관으로 나뉘었다.

특히 전시회 기간동안 각종 기술 소개와 세미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데스크톱 플랫폼, 클라이언트 서버, 솔루션 아키텍처, 정보 고속도로, 개발자 툴박스, 네트워크 컴퓨팅, 모빌 / 무선 / 리모트 컴퓨팅, 뉴미디어, 네트워크와 시스템 관리 기술 등 11개 테마를 100여개 세션으로 나뉘어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 특징이다.

### MCI 등 기간통신 업체 참가

버트 로버츠 MCI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로버트 플랭크버그 노벨회장이 이번 컴덱스를 빛내기 위해 기조연설을 가졌다. 로버츠와 플랭크버그는 멀티미디어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비

전을 제시했으며, 빌 게이츠는 윈도우 95를 오는 8월에 패키지당 100달러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등장한 아이템은 ISDN, 클라이언트 서버 솔루션, 그룹웨어, 미들웨어, TCP/IP, 고속모뎀, LAN/WAN, 케이블링, 네트워크 관리, 무선통신,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다양했다. 멀티미디어 분야도 MPEG 등 다양한 제품이 대거 전시됐으며, 인터넷 관련제품 출시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LAN/WAN 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다. 특히 MCI, 아메리카 온라인, 컴퓨서브 등 세계적 정보통신 업체의 첫 참여가 눈에 띄었다.

아메리카 온라인은 관람객이 쉽게 인터넷을 배울 수 있도록 40여개 PC를 설치해 즉석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했다. PS-INet는 인터넷 환경에서 LAN-DIAL 서비스와 LAN-ISDN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공개했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관련 제품은 모뎀에서부터 WWW 서버 개발 툴, 블라우저 등 각종 소프트웨어, 참여 업체의 홈페이지 실연까지 폭넓게 전시돼 입장객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장거리 전화업체인 MCI는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화상, 뉴스전송 등과 같은 응용 통신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공동으로 SONET으로 연결하는 초고속 백본 네트워크 서비스 VBNS(Very High Speed Backbone Network Service : 전송속도 600Mbps 가능)를 발표했다.

데이터 통신용 팩스모뎀은 대부분 28.8Kbps급이었지만, 헤이스는 ISDN 환경을 지원하는 92.16K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고속 모뎀을 출시해 관심을 끌었다.



ISDN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업체는 컨트롤투어와 텔소프트다. 컨트롤투어는 ISDN용 커넥티비티를 비롯해 터미널 어댑터, 다이얼 백업 어댑터, 다이얼 백업 등의 제품을 출품했으며, 텔소프트는 저가형 ISDN 인터페이스 보드를 공개했다.

넷매니지는 윈도우 환경의 TCP/IP 애플리케이션을, ftp 소프트는 TCP/IP의 새로운 버전인 OnNet 2.0을, 마이크로플렉스는 인텔리전트 허브 환경의 워크그룹 프린터 서버를 선보였다. 스토리지(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백업장치) 분야에서는 APC, 스토리지팩스, 아카다가 인기를 끌었다.

## 세계 컴퓨터 산업 비전 제시

데스그룹 화상회의 시스템도 눈에 띄는 제품 중의 하나였다. C-폰, 텔레오스, 후지쯔 등이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른 MPEG 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MPEG 기술이 PC에 도입,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화상회의 시스템 등 고급 애플리케이션의 요소 기술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 텔, IBM, 휴렛팩커드, 컴팩 등

컴퓨터 업체는 셀룰러 기술을 이용한 모바일/무선 컴퓨팅 솔루션을 보여 이채로웠다.

홈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의 출시도 눈길을 끌었다. 노벨은 홈 시장을 겨냥한 퍼펙트홈을 발표했다. 퍼펙트홈은 가정과 사무실에 초점을 맞춘 개인용 업무·오락·교육 소프트웨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대응하기 위해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등을 패키지화한 퍼펙트웍스의 베타를 공개했다. 그룹웨어 제품도 관심을 증폭시켰다.

윈도우 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95의 잔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시 업체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설치했으며, 200개 회사가 윈도우 95 지원 제품을 출품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컴퓨터는 윈도우 95를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컴덱스는 세계 컴퓨터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하듯 애플컴퓨터, 컴팩, IBM, MCI, 마이크로소프트, 노벨, 로터스, 디지털, 휴렛팩커드, NEC, 도시바, 모토라 등 세계 주요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업체가 출품한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은 향후 세계 컴퓨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 컴덱스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만의 전시회가 아니다. 네트워크를 비롯해 화상회의 시스템, 멀티미디어 등이 어우러진 통합 컴퓨팅 쇼로 자리잡고 있다.